제7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본문 1~4쪽까지.indd 1 2016-09-19 오후 5:29:30

개회식

14:00 ~ 14:30

개　회 – 사회자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내 · 외빈소개
환영사 –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축　사 –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부 주제 발표 및 토론

14:30 ~ 17:30

제1주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 행태 연구 및 시사점"
발 제 자 –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제2주제 "취약차주 부채 현황과 시사점"
발 제 자 – NICE CB연구소 문영배 소장

좌　　장 – 심지홍 소비자금융연구소 소장
토 론 자 – 김규한 상명대학교 교수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교 교수

2부 특별강의

18:00 ~ 19:00

"마음을 치료하는 한국의 음악"

만찬

19:00 ~ 20:00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 연구 및 시사점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제주컨퍼런스-1.indd 1 2016-09-19 오후 5:15:06

제주컨퍼런스-1.indd 2 2016-09-19 오후 5:15:06

< 제7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 행태 연구 및 시사점

2016년 9월 22일

이민환 (인하대)

목 차

Ⅰ. 서론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

1. 미국 페이데이론

1) 미국 페이데이론의 특징

2)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

2. 영국 페이데이론

3. 일본 대금업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 형태 분석

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2. 대부업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Ⅳ. 결론

제주컨퍼런스-1.indd 3 2016-09-19 오후 5:15:07

I. 서론

❖ **우리나라 대부업시장은 최고금리 인하, 중개수수료 상한제시행,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등으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음**

-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연 39%에서 연 27.9%로 인하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압력 증가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5%이내로 제한하고 금융권별 비대면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고객신용정보보호 강화로 영업환경 악화
-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저축은행과의 고객 확보경쟁이 가속화되는 한편, 전체 시장규모는 축소가 불가피

I. 서론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니즈 및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를 명확히 규정지음과 동시에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부업 이용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 연관성을 분석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용목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제주컨퍼런스-1.indd 4 2016-09-19 오후 5:15:07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미국

1. 미국 페이데이론

❖ **페이데이론은 높은 이자율로 개인들이 단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는 서비스임**

- 페이데이론 이용자들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빌리고자 하는 날짜와 함께 적어 수표(check)로 제출
- 페이데이론 업자는 그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기입되어 있는 날에 맞춰 돈을 지급하고 이용자의 다음 월급날에 대출금을 회수
- 약 1,200만 미국 성인들이 매년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며, 이용자는 평균 375달러씩 8번 정도 대출을 받고, 1년에 이자로 520달러 정도 지불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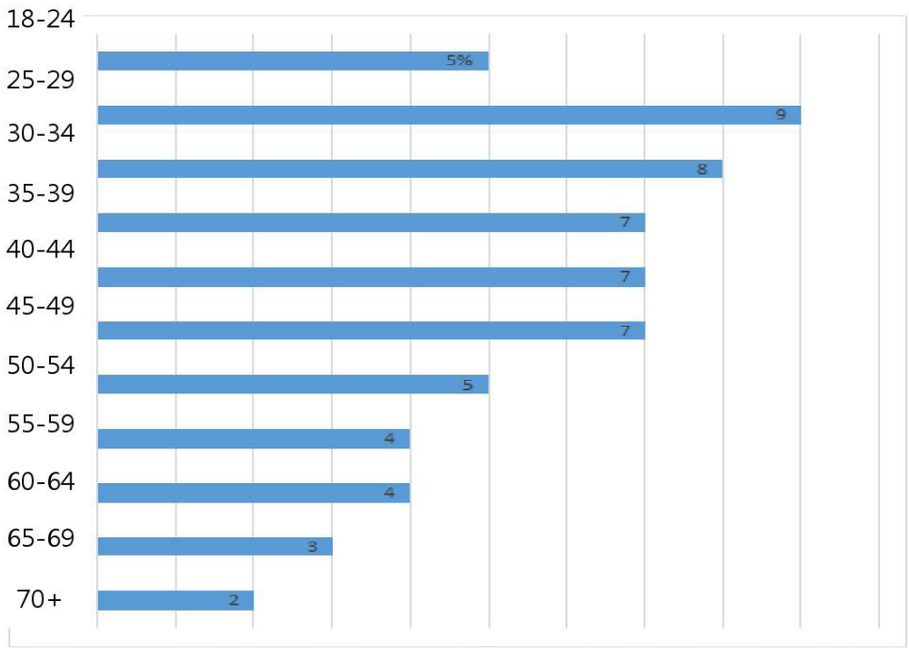
❖ **Pew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미국성인 인구의 5.5%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중하위 소득계층과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The PEW Charitable Trust에서 2012년 조사한 페이데이론 이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52%가 여성이며, 55%는 백인
- 자가주택 소유자의 4%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반면, 세입자는 10%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5~44세의 비중이 31%, 가구소득이 40,000달러 이하인 경우가 72%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해 대출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제주컨퍼런스-1.indd 5 2016-09-19 오후 5:15:08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미국

<그림 1> 연령별 페이데이론 이용자 비율



출 처 :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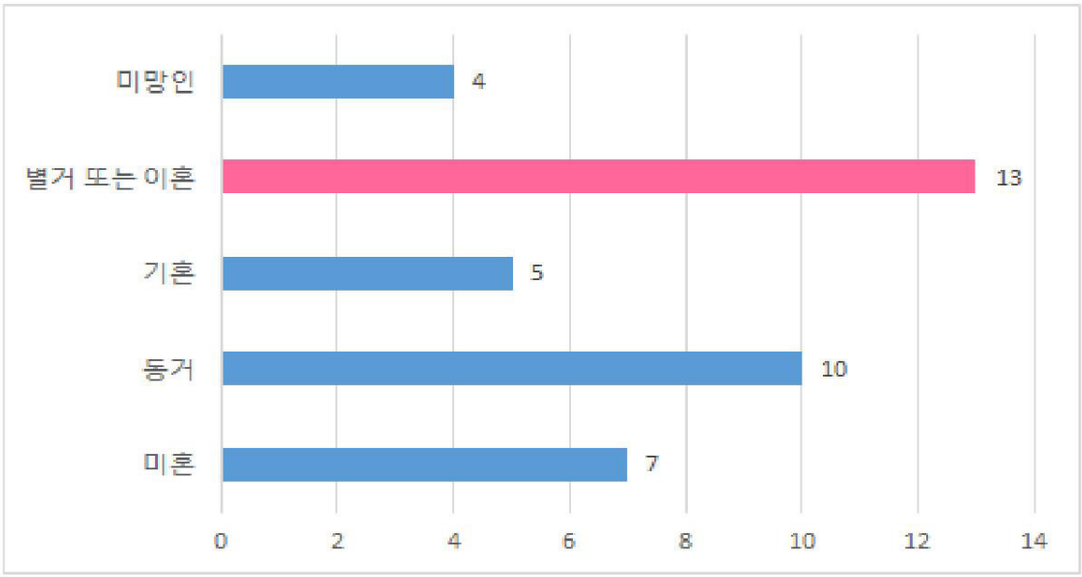
❖ 교육수준에 따른 페이데이론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 이하 학력자에 비해 현저히 페이데이론의 이용률이 떨어진 반면, 4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자들 간에 페이데이론 이용률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었음

❖ 혼인여부에 대해서는 별거 또는 이혼 중인 경우에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경향이 기혼자보다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주컨퍼런스-1.indd 6 2016-09-19 오후 5:15:08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미국

<그림 2> 혼인여부에 따른 페이데이론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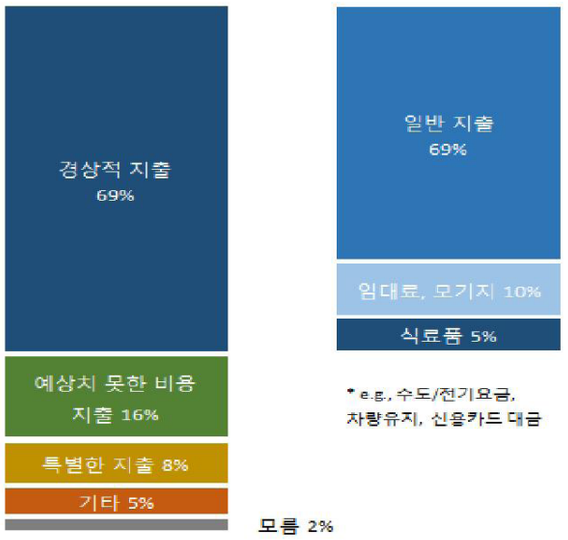


출 처 :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미국

❖ 페이데이론 사용자의 70% 정도가 생계비 지출을 위해 페이데이론을 이용한다고 응답

<그림 3> 페이데이론의 사용 목적



출처 :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제주컨퍼런스-1.indd 7 2016-09-19 오후 5:15:08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미국

❖ **페이데이론은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약탈적 대출의 성격이 강해 주별로 이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 **Permissive States (허용형 규제)**

: 연간 391%~521%(2주 간 15%~20%)에 해당하는 금리는 허용

- 페이데이론 점포가 이러한 주들의 곳곳에서 영업 가능하며, 미국인의 대부분이 (55%) 이러한 형태의 규제를 허용하는 28개 주에 살고 있음

❖ **Hybrid States (혼합형 규제)**

: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규제를 시행

- 대출원금의 10% 금리상한 설정. 대부분의 주에서 보다 낮은 금리이지만 여전히 연간 세 자릿수의 고금리를 허용
- 대출 이용자 당 대출계약 수의 제한 설정 (예 : 이용자 당 연간 최대 8회 대출)
- 복수 기간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금으로 이전 기간의 대출 상환을 가능하도록 허용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미국

❖ **Restrictive States(제한형 규제)**

- 페이데이론이 주에서 사라지도록 할 만큼 금리 상한을 낮게 설정(연간 36% 수준)하며 이러한 주에서는 페이데이론 점포를 찾아볼 수 없음
- 점포에 대한 규제가 페이데이론 이용자들로 하여금 규제 영역 밖의 온라인 대출을 성행하도록 한다는 우려가 존재할 수 있음

❖ **페이데이론은 성, 인종, 민족,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경계를 넘어 대부분의 사회계층을 가리지 않고 이용되는 상품**

❖ **그러나 연복리 400%를 넘는 2주짜리 대출 상품이 만성적인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팽배하고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주당국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편**

제주컨퍼런스-1.indd 8 2016-09-19 오후 5:15:09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영국

2. 영국 페이데이론

❖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도 개시된 페이데이론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 수단**

- 영국의 페이데이론의 이용자는 자동차나 의료 사고, 집 수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급여일 이전에 자금이 부족한 자가 이용
- 영국 페이데이론과 가계신용대출과 가장 큰 차이는 가계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 소유 여부 및 고용사실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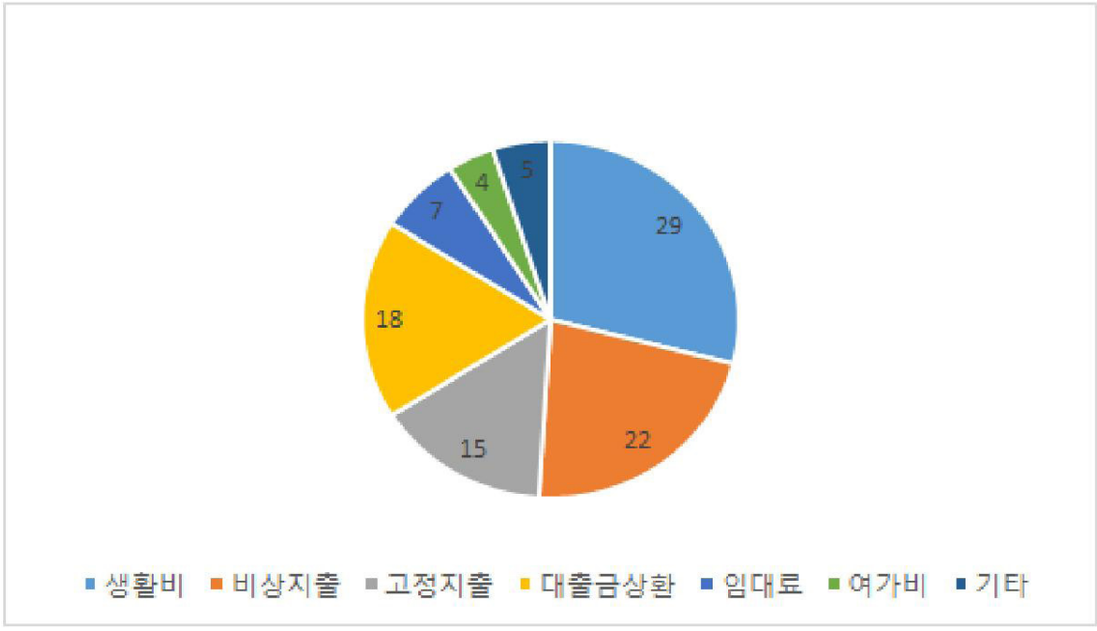
❖ **Citizens Advice Scotland(CAS)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절반은 풀타임 근로자이며, 200~499 파운드를 차입**

- 영국의 페이데이론은 2011년 기준 2.0~2.2조 파운드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출금 100파운드당 수수료는 14~51파운드 사이에서 결정되고, 평균 25파운드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
- 다음으로 페이데이론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생계비(식품이나 연료 구입)로 29%였으며 긴급한 지출이 22%, 여타 대출의 상환이 18%를 차지
-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50%가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이며 다음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17%, 실업자가 10% 순

제주컨퍼런스-1.indd 9 2016-09-19 오후 5:1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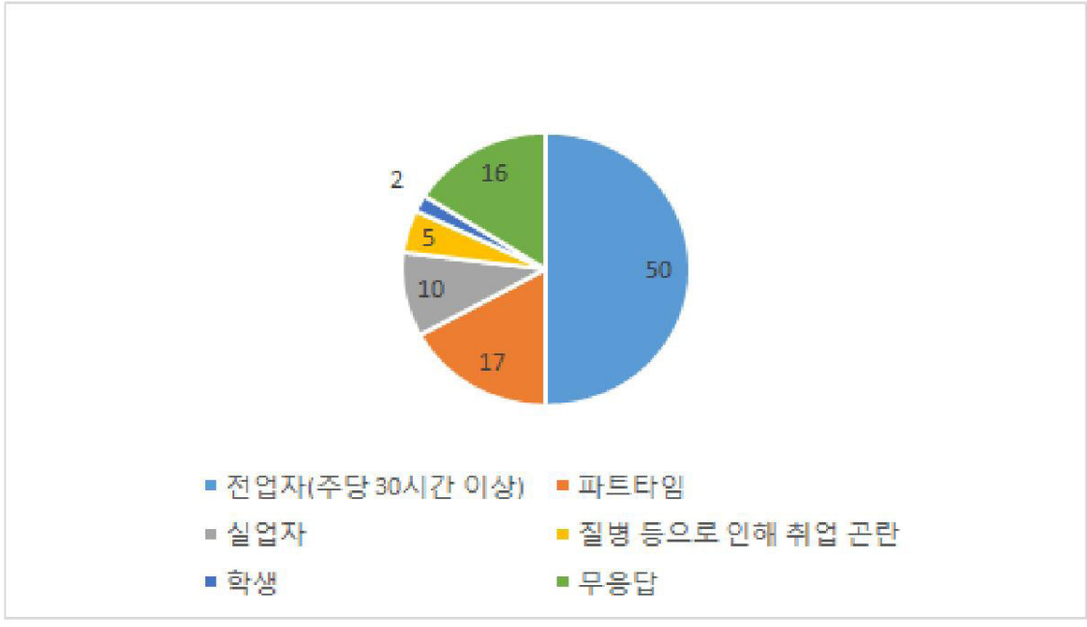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영국

<그림 4> 페이데이론 이용목적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영국

<그림 5>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직업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일본

3. 일본 대금업

❖ **일본에 있어서 대금업은 개별업법에 의해 규정된 금융회사 (은행, 보험, 증권, 신용금고 등)를 제외한 금전의 대출과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광범위하게 정의**

- 대금업의 기원은 1960년 전후에 시작된 단지금융에서 찾을 수 있다. 단지금융은 당시 고소득층이 중심이었던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출해주는 업무를 지칭
- 이 당시 일본 대금업의 영업형태는 이용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신청을 받아, 직접 직원이 대출금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는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는 목적 이외에도 이용자의 주거지 확인 및 본인 확인이라는 심사 기능을 겸비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일본

❖ **금융청의 "대금업 이용자에 대한 조사·연구"와 닛케이리서치의 "금융행동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본 대금업이용자의 이용형태를 분석**

- 닛케이의 금융행동조사에 따르면 대금업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금업 이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용자가 가장 높고 30대, 50대의 순임
- 직업에 있어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비중이 전체 샘플에서는 35.1%에 불과했으나 대금업 이용자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약 44%로 증가
- 대금업 이용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무직 등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음

제주컨퍼런스-1.indd 11 2016-09-19 오후 5:15:10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일본

-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연간소득에 있어서 300만엔 이하의 저소득 구간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700만엔 이상의 상위소득 구간 비율이 전체 대상자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대금업의 대출 공급이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닛케이의 금융행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직업별로는 비정규직, 그리고 가족이 있는 가구에서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직업 및 고용형태의 경우 무직은 민간 및 공적기관의 정규직에 비해 대금업을 이용할 확률이 5% 유의수준에서 3.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가족구성에 관해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에 비해 자녀가 없는 기혼이 대금업을 이용할 확률이 5.7포인트 낮게 나타났음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일본

❖ **금융청에서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소비자금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수입, 직업을 기초로 이용목적에 대해 분석**

- 위 조사에서는 3년 이내 차입경험자가 약 6.9%, 3년 이내 차입 경험이 없는 자가 약 93.1%
- 현금서비스의 경우 생활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38.1%), 갖고 싶은 물건 구입(28.5%), 신용카드 대금 지급(21.4%) 순임
- 그리고 연간수입이 낮을수록 생활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비율이 높고, 직업별로는 개인사업자, 파견 및 계약 사원 등 신분이 불안정한 직업의 생활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차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소비자금융업 이용에 있어서는 생활비 부족분의 충당(42.8%), 갖고 싶은 물건의 구입(21.8%), 유흥비의 부족(20.3%)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금서비스에 비해 생활비 조달을 위한 차입 비중이 높게 조사되었음
- 연수입과 이용목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간수입이 낮을수록 생활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소비자금융이 현금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타남

제주컨퍼런스-1.indd 12 2016-09-19 오후 5:15:10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일본

<표 1>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용목적

	샘플 수	생활비(광열, 수도 등)부족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나 돈이 부족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불을 위해	유흥비가 부족해서	관혼상제 지출을 위해	의료비 지출	다른 대금업자의 차입자금 상환	도박 자금의 부족	주택대출 자금 상환	기타
3년 이내 차입 경험자 전체	2046	38.1	28.5	21.4	16.9	6.5	5.6	4.8	4.8	4.1	7.6
0엔	170	44.7	27.1	19.4	13.5	2.4	3.5	3.5	3.5	1.8	10
1~300만엔 이하	962	44	26.8	21.9	13.9	6.7	6.1	4.9	3.6	3.6	7
301~500만엔 이하	503	33.4	31.8	22.3	17.5	8.7	6	4.4	7	3.8	4.8
501~1000만엔 이하	372	28.2	29	19.9	25.5	5.4	5.4	6.2	5.4	6.7	9.9
1001만엔 이상	39	20.5	30.8	20.5	15.4	2.6	0	0	5.1	5.1	28.2
회사원	854	36.2	28	21.3	21.1	5.2	4.8	4.7	5.4	4.6	6.8
경영자 및 임원	73	37	32.9	27.4	5.5	8.2	2.7	2.7	5.5	9.6	
개인사업자	672	46	24.3	23.4	11.5	6.8	5.1	5.4	4.3	5.2	8.2
공무원	92	21.7	32.6	17.4	16.3	3.3	2.2	4.3	6.5	4.3	14.1
전문직	57	35.1	36.8	19.3	15.8	12.3	7	1.8	1.8	0	3.5
농림어업	30	30	30	20	13.3	3.3	3.3	3.3	0	0	6.7
파견, 계약 사원	178	50.6	30.9	24.7	12.9	9	3.9	7.3	6.2	4.5	6.7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308	47.7	24	23.1	13.3	7.8	8.1	5.5	4.2	2.3	4.9
전업주부	145	40.7	24.8	17.2	11.7	5.5	6.2	2.8	2.8	2.8	10.3
무직	160	27.5	35.6	22.5	20	6.3	8.8	4.4	4.4	3.1	8.1
학생	35	31.4	34.3	20	22.9	0	8.6	2.9	2.9	14.3	11.4
기타	9	39.1	19.3	0	0	0	0	0	10	9	0

Ⅱ.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일본

<표 2> 소비자금융의 이용목적

	샘플 수	생활비(광열, 수도 등)부족	갖고싶은 물건이 있으나 돈이 부족해서	유흥비가 부족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불을 위해	다른 대금업자의 차입자금 상환	도박 자금의 부족	관혼상제 지출을 위해	의료비 지출	주택대출 자금 상환	기타
3년이 내 차입 경험자 전체	582	42.8	21.8	20.3	18.6	11	9.8	8.8	7.6	5.8	4
0엔	29	48.3	24.1	17.2	10.3	6.9	6.9	10.3	17.2	0	6.9
1~300만엔 이하	290	51.4	17.9	17.9	19.7	11	7.2	6.9	7.9	4.8	4.1
301~500만엔 이하	170	35.3	25.9	22.4	18.8	10.6	12.4	10	4.7	3.5	2.9
501~1000만엔 이하	89	29.2	24.7	25.8	18	13.5	12.4	12.4	9	15.7	4.5
1001만엔 이상	4	0	50	0	0	0	50	0	0	0	0
회사원	302	37.7	22.8	21.9	19.5	10.9	11.3	11.3	7.3	7.3	2.6
경영자 및 임원	15	33.3	13.3	6.7	6.7	6.7	13.3	6.7	6.7	6.7	6.7
개인사업자	150	45	18	11.3	25.3	10.7	5.3	7.3	4.7	7.3	9.3
공무원	34	41.2	26.5	17.6	17.6	14.7	14.7	2.9	2.9	8.8	5.9
전문직	11	63.6	18.2	18.2	36.4	18.2	0	18.2	9.1	0	0
농림어업	4	50	25	0	50	0	0	0	0	0	0
파견, 계약 사원	47	51.1	21.3	25.5	14.9	10.6	8.5	0	4.3	0	6.4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93	59.1	19.4	21.5	19.4	10.8	5.4	6.5	6.5	2.2	4.3
전업주부	19	42.1	15.8	21.1	15.8	5.3	10.5	10.5	5.3	5.3	0
무직	21	42.9	19	28.6	9.5	19	9.5	14.3	0	4.8	0
학생	15	33.3	33.3	6.7	13.3	6.7	6.7	0	26.7	13.3	0
기타	9	39.1	19.3	0	0	0	0	0	10	9	0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 **매년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이용실태를 기초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개략적인 특성을 도출**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별 대부업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20~30대 이용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 중· 고령층의 이용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95%(2015년 기준)가 고졸 이상이며 대학원 졸업 이상도 2%를 차지하는 등 여타국가에 비해 고학력자 비중이 높음
-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생활자금 등 생계형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2. 대부업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2012년과 2016년에 실시한 대부업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분석**

❖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설문지 조사항목 중**

① 대부업 이용 경험 **② 총부채 금액**
③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금액 **④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
⑤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한 근본적인 이유 **⑥ 차입금의 사용처**
⑦ 대부업 선택 시 고려사항 **⑧ 대부업을 알게 된 동기**
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담 여부
⑩ 타 금융기관 상담 후 대부업체를 이용한 이유
⑪ 타 금융기관에 상담하지 않고 대부업을 이용한 이유
⑫ 채무상환 방법 **⑬ 대부업의 부족한 점** **⑭ 대부업의 좋은 점**

이상의 14개 질문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

제주컨퍼런스-1.indd 14 2016-09-19 오후 5:15:11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 범주형 질문 중 질문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를 카테고리화

- 총 대상자는 전체 표본 수에서 응답하지 않는 표본을 제외한 결과, 2012년 3,664명, 2016년 4,822명이며 이 중 남성은 2012년 기준 53.4%, 2016년 기준 54.8%를 차지, 연령별로는 이용빈도수에 따라 30대 및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
- 직업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인 60%정도를 회사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 주부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월소득에 있어서도 300만원 이하의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기혼자의 비중이 미혼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표 3> 표본 분포

		2012년(%)	2016년(%)
성별	남자	1955(53.36)	2642(54.79)
	여자	1709(46.64)	2180(45.21)
연령	20대	813(22.19)	992(20.57)
	30대	1511(41.24)	1454(30.15)
	40대	921(25.14)	1412(29.28)
	50대	387(10.56)	842(17.46)
	60대 이상	32(0.87)	122(2.53)
학력	초등졸	21(0.57)	31(0.64)
	중졸	102(2.78)	182(3.77)
	고졸	1822(49.73)	2549(52.86)
	대졸	1641(44.79)	1978(41.02)
	대학원이상	78(2.13)	82(1.7)
직업	회사원	2227(60.78)	2891(59.95)
	공무원	82(2.24)	103(2.14)
	자영업	796(21.72)	1176(24.39)
	주부	437(11.93)	542(11.24)
	대학(원)생	48(1.31)	38(0.79)
	무직	74(2.02)	72(1.49)

제주컨퍼런스-1.indd 15 2016-09-19 오후 5:15:12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표 3> 표본 분포(계속)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42(5.02)
	100~200만원		1564(32.43)
	200~300만원		1584(32.85)
	300~400만원		726(15.06)
	400~500만원		348(7.22)
	500~600만원		168(3.48)
	600만원 이상		190(3.94)
금융채무 불이행 여부	금융채무 불이행자	292(7.97)	477(9.89)
	정상거래자	3372(92.03)	4345(90.11)
결혼 여부	미혼	1663(45.39)	2006(41.6)
	기혼	2001(54.61)	2816(58.4)
동거가족수	1명		924(19.16)
	2명		858(17.79)
	3명		1288(26.71)
	4명		1349(27.98)
	5명		403(8.36)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표 4> 범주형 질문의 구분

질문 내용	설문지 답변
⑤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한 근본적인 이유	
1) 생계형	① 실직 및 휴직 ② 부도 등 사업실패 ③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필요
2) 소비형	④ 경마, 화투 등 도박 ⑤ 술, 오락 등 유흥비 마련 ⑥ 옷 등 과다한 쇼핑(과소비)
3) 상환형	⑦ 금융회사 대출금 정리
⑥ 차입금의 사용처	
1) 사업	① 사업자금
2) 생활	② 가계생활자금
3)금융기관 관련	③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④ 카드(연체)대금 납부 ⑤ 다른 대부금융 대출 상환
⑦ 대부업 선택 시 고려사항	
1) 금리	① 이자율
2) 등록여부	② 대부업 등록여부
3) 대출서비스	③ 대출의 신속성 ⑤ 대출기간 ⑥ 대출금액
4) 친절도	④친절도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표 4> 범주형 질문의 구분(계속)

⑧ 대부업을 알게 된 동기	
1) 케이블	① 케이블 등TV광고
2) 신문	② 생활정보지(무가지) ⑥ 일간지 ⑦ 전단지
3) 인터넷	③ 인터넷(메일)
4) 지인	④ 친구 등 지인
5) 휴대폰	⑤ 핸드폰 광고(문자 포함)
6) 중개업자	⑧ 중개업자
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담 여부	
1) 은행	① 은행
2) 저축은행	② 저축은행
3) 상호금융	③ 신협 ④ 새마을금고
4) 상담경험 무	⑤ 금융기관에서 상담 받은 적 없음
⑫ 채무상환 방법	
1) 자력상환	①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2) 신용회복위원회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계획이다.
3)법원	③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④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신청
4) 모름	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1. 대부업 이용 여부

❖ **대부업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2012년 분석에 있어서는 직업, 연체 여부에 대한 변수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에 있어서는 무직에 비해 회사원은 5% 유의 수준으로 대부업 이용 확률이 약 34.3%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공무원은 무직에 비해 44.6%포인트, 대학(원)생은 63.4%포인트 5% 유의수준으로 이용 확률이 저하
- 연체자는 정상거래자에 비해 5% 유의수준에서 22.7%포인트 이용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부업 이용자가 신용불량자보다 정상금융거래자가 주거래 고객인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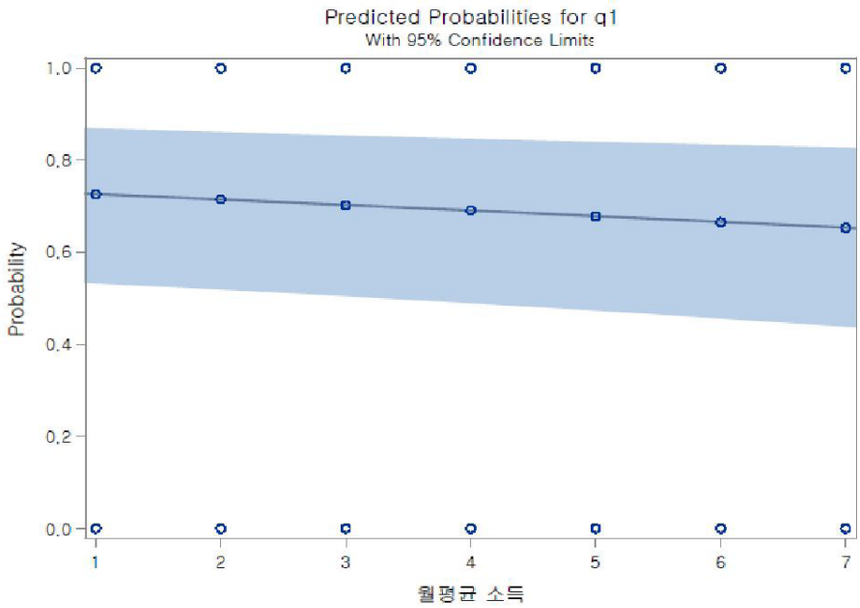
❖ **2016년 분석에 있어서는 새롭게 추가된 소득에 대해 10% 수준에서 대부업 이용 여부와 유의한 것으로 분석**

제주컨퍼런스-1.indd 17 2016-09-19 오후 5:15:13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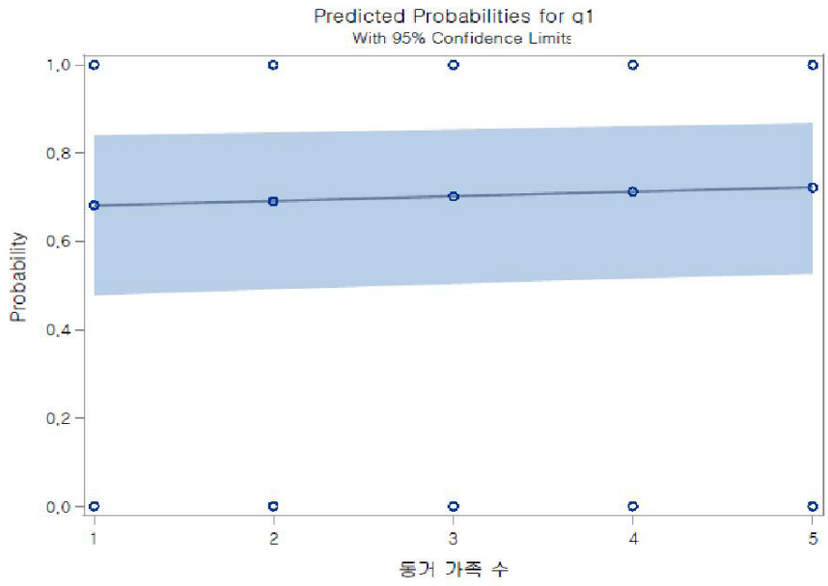
<그림 6> 월소득과 대부업 이용확률과의 관계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 동거인 수도 10% 유의수준에서 대부업 이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7> 동거 가족 수와 대부업 이용확률과의 관계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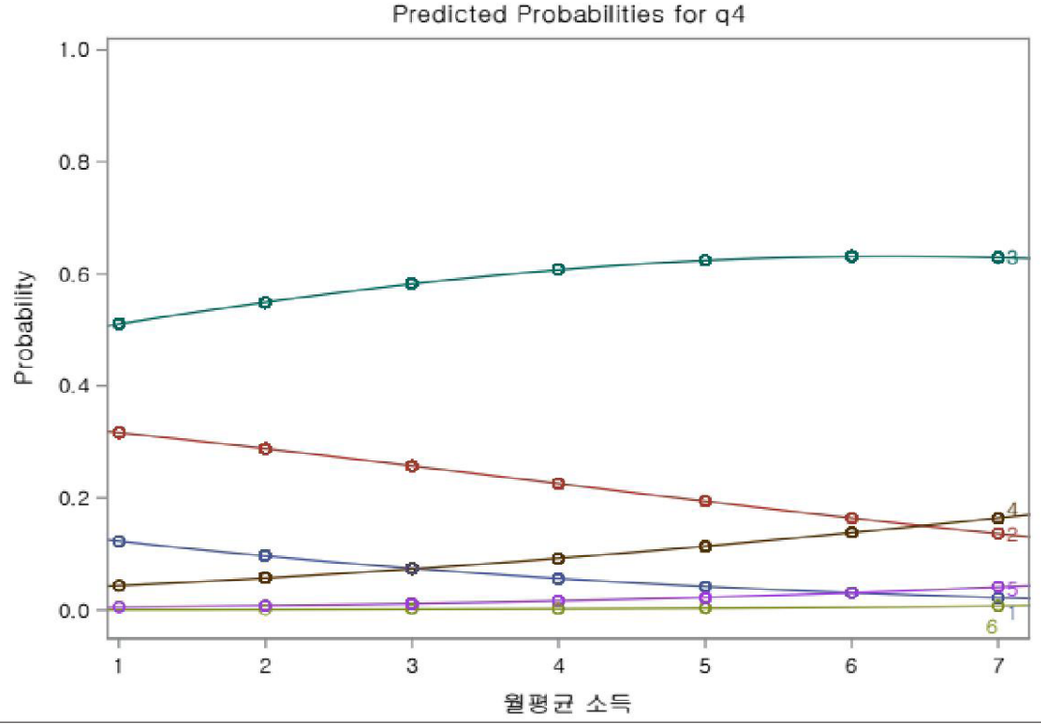
2. 총 부채금액

❖ **총부채금액은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총부채금액은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총부채금액과의 연관성이 10%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 그리고 연령에서 대해서는 60대에 비해 40대가 총 부채와의 관련성에서 10% 수준에서 37.4% 부채와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 월평균 소득과 부채금액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부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초과의 부채에 대해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 증가하는 경향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그림 8> 총 부채금액과 대부업 이용확률과의 관계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 부채금액이 아예 없거나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 이용 확률은 감소하는데 이는 소액 부채의 경우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대부업을 통해 소액 부채를 차입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해석
- 다음으로 부채액이 5백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액

❖ **2012년 분석결과, 결혼 여부와 회사원,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대해서만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2016년 분석결과는 추가된 소득과 동거인 수에 대해 각각 1% 수준과 5%수준에서 유의**

- 성별, 연령 등 모든 변수에 있어서 대부업으로부터의 차입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계층이 대부업으로부터 신규 차입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4. 대부업 평균 이자율

❖ **대부분의 결과에서 유의성이 기각되었음**

- 대부업에 대한 이자율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을 지키고 있고 따라서 조사목적인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가능성과 이자율과의 상관성이 낮음

5. 차입 이유

❖ **2012년 결과는 학력과 기혼여부, 2016년 결과는 기혼여부에 대해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음**

제주컨퍼런스-1.indd 20 2016-09-19 오후 5:15:14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 성별로는 남녀 모두 생계형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생활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해 대부업으로 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만 2016년에는 생계형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대신 오락 등을 위해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하는 비중이 증가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생계를 위한 대부업 이용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3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에 비해 오락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2012년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을 위한 대부업 차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오락을 위한 차입이 감소하고 생계를 위한 차입 비중이 증가한 것이 특징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6. 자금의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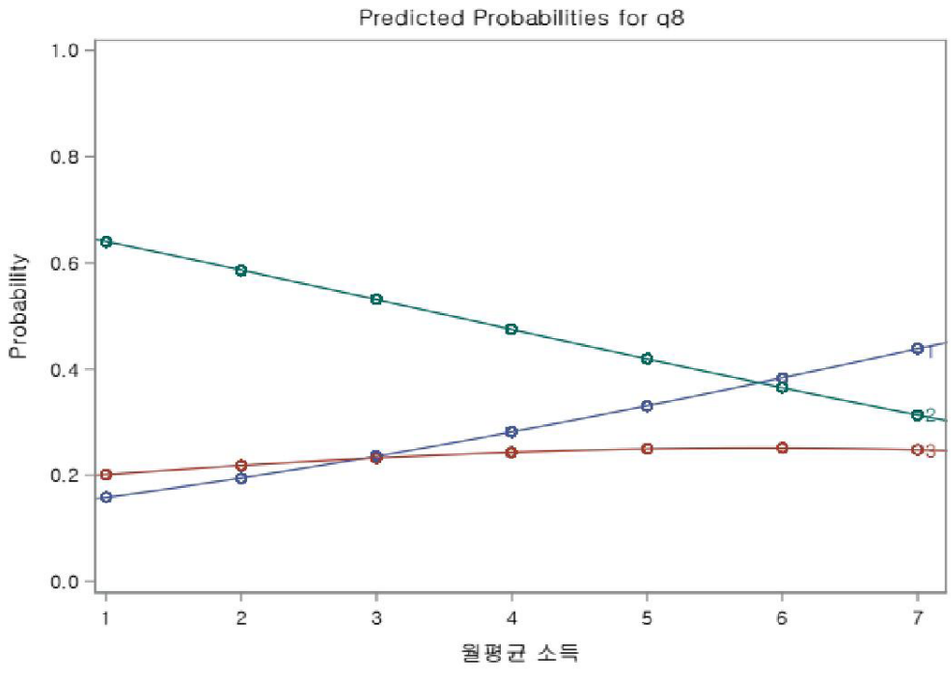
❖ **2012년 결과는 일부 학력과 결혼여부에 대해서 유의한 반면, 2016년 결과는 일부 직업과 소득, 결혼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 자금사용용도 변수와 5% 유의수준에서 유의**

- 소득 변화와 자금사용용도를 살펴보면 1) 사업자금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2) 생활 자금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3) 대출상환 등 금융기관 채무와 관련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전반적으로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할 때 거의 모든 변수에서 사업자금을 위한 차입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생활자금을 위한 차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

제주컨퍼런스-1.indd 21 2016-09-19 오후 5:15:14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그림 9> 자금 사용처와 월평균소득과의 관계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7. 대부업 선택요인

❖ **대부업 선택요인을 살펴보면 2012년 결과 거의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은 반면 2016년 결과는 성별, 연령에 있어서 유의**

- 2016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자의 50%, 여자의 45%가 대출의 신속성으로 대부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남자의 37%, 여자의 39%가 이자율을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성과 소비자들이 타 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로 인해 금리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주컨퍼런스-1.indd 22 2016-09-19 오후 5:15:15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8. 대부업을 알게 된 경로

❖ **대부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2012년 분석의 채무불이행 여부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을 뿐 대부분의 변수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음**

- 이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있어서 대부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9. 대출상담 금융기관

❖ **대출상담 금융기관과 대부업 이용과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 대부업 이용 이전 어떠한 금융기관과 대출에 대해 상담하였던 간에 그 결과는 대부업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10. 타 기관 상담 후 이용 이유

❖ **타 금융기관 상담 후 대부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 분석 결과 채무불이행 여부만 유의**

-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금융기관과 상담 후 대부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11. 상담하지 않고 이용한 이유

❖ **타금융기관과 상담하지 않고 대부업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2012년 분석에서는 채무 불이행 여부만 1% 수준에서 유의**

- 그러나 2016년에서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대부업 이용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2012년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제주컨퍼런스-1.indd 23 2016-09-19 오후 5:15:15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12. 채무상환 방법

❖ **채무상환방법에 대해서는 2012년과 2016년 모두 채무불이행 여부와 채무상환방법 사이에 1% 수준에서 유의**

-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금융채무불이행자는 92%, 금융채무 이행자는 97%가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할 확률이 있음
- 이는 설문조사가 대출이 실행된 직후에 이루어져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대해 과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13. 대부업의 부족한 점

❖ **대부업의 부족한 점과 대부업 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2016년 기혼 여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가 생활자금 대출인 탓에 대부업 이용의 불편 정도는 대부업 이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Ⅲ.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14. 대부업의 좋은 점

❖ **대부업의 좋은 점과 대부업 이용과의 분석에서는 2012년 분석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2016년 분석에서는 결혼 여부가 유의**

- 2012년 분석에서 남성의 경우 신속한 대출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53%, 여성의 경우 49%가 대부업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50대까지는 신속한 대출이라 응답한 사람이, 60대에는 신용도, 대출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확률이 커짐

제주컨퍼런스-1.indd 24 2016-09-19 오후 5:15:16

Ⅳ. 결론

❖ **본 보고서는 매년 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이용실태조사를 기초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특징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의 기초 특성을 활용하여 분석**

- 대부업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 분석결과에서는 직업, 연체 여부가 유의
- 사용용도가 생활 자금인 경우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증가
  - 대부업 이용자 중 20~30대 비중이 높아 과소비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상이
  - 즉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과소비 등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이며
  - 신용카드에 비해 편리성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대부업의 경우에는 과소비에 대한 지출보다는 타 금융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Ⅳ. 결론

- 반면 대부업 이용 경로, 대출 이자율 등은 대부업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미국과 영국의 페이데이론, 일본의 대금업 이용자의 이용 형태와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의 페이데이론 이용자는 일본 및 우리나라의 이용자에 비해 학력, 소득 등에 있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남
- 대부업 시장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건전한 생활자의 단기간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시장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금조달 환경 개선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대부업시장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만큼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대부업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리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임

제주컨퍼런스-1.indd 25 2016-09-19 오후 5:15:16

Ⅳ. 결론

❖ **과다한 금리인하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금리수준이 결정 되어야 할 것임**

- 과거 대부업은 높은 대출금리를 배경으로 여타금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어왔음
- 그러나 현재 대출상한금리가 27.9%로 낮춰져 있는 현실에서는 과거와 같이 높은 이익을 향유하기 어려움

Ⅳ. 결론

- 대부업 이용자가 저신용자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여건에서도 대부업의 자금공급은 줄어들 수 있음
- 또한 과다한 상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의 자금공급을 더욱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중간 신용자시장에로의 자금공급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선 상환능력 미비로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저신용, 저소득자들에게는 금융적인 접근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가의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부업의 대출이 단기간 긴급자금에 대한 대출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장기대출보다는 단기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 규제가 과다하게 이루어져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에 따른 시장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주컨퍼런스-1.indd 26 2016-09-19 오후 5:15:17

감사합니다!

제주컨퍼런스-1.indd 28 2016-09-19 오후 5:15:17

취약차주 부채 현황과 시사점

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 소장

제주컨퍼런스-1.indd 29 2016-09-19 오후 5:15:17

제주컨퍼런스-1.indd 30 2016-09-19 오후 5:15:17

Discover More
Information

Create Further
Knowledge

Deliver Better
Solutions

취약차주 부채 현황과 시사점

NICE평가정보 CB연구소
문 영 배

2016. 09. 22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NICE평가정보(주)

Discover More
Information

Create Further
Knowledge

Deliver Better
Solutions

Contents

01 가계대출시장 동향
02 가계대출 건전성 진단
03 유형별 분석
0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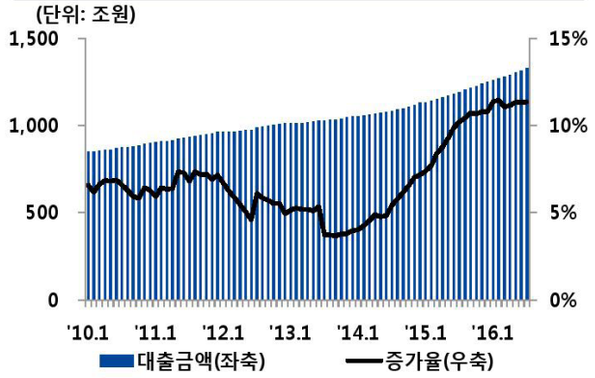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NICE평가정보(주)

'15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나,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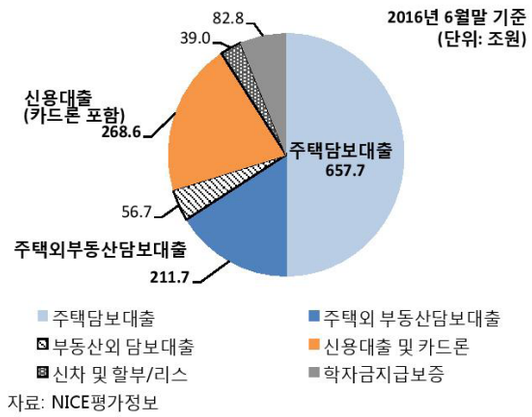
- 가계대출은 '14년 8월 LTV·DTI 합리화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 '15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16년 6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1.3%, 전월대비 1.1% 증가) 기록

가계대출시장 현황(잔액 기준)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NICE평가정보

상품별 가계대출 현황(잔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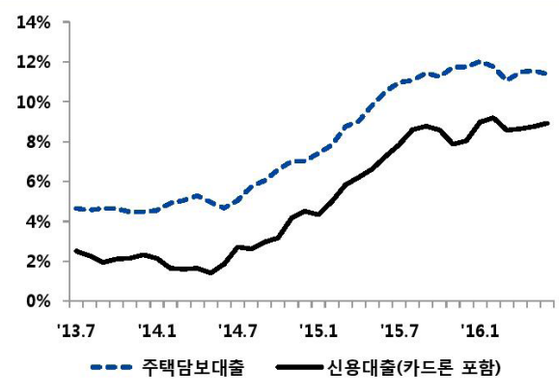
자료: NICE평가정보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가운데, 신용대출(카드론 포함)은 카드론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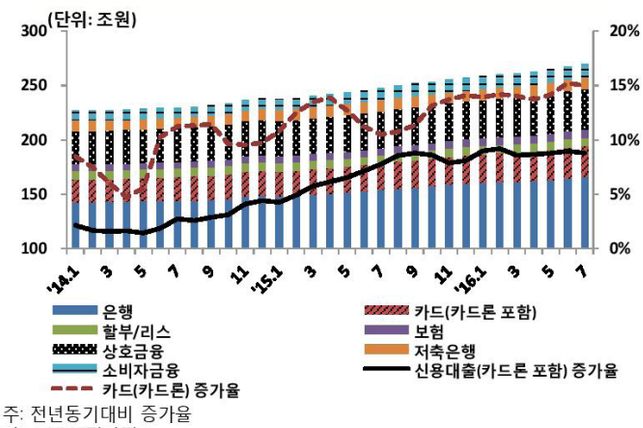
- '16년 2월 여심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11%대의 높은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을 유지하고 있음
- 신용대출(카드론 포함)도 카드론 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9%대의 증가율 기록

주담대 및 신용대출 증가율(잔액 기준)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NICE평가정보

업권별 신용대출(카드론 포함) 잔액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NICE평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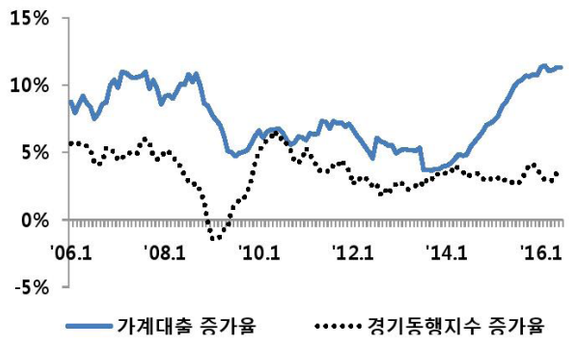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주컨퍼런스-1.indd 32 2016-09-19 오후 5:15:18

가계부채 잔액 및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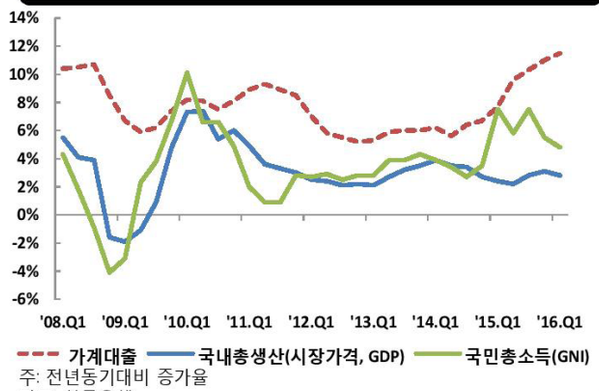
-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최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의 대리변수인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은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은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가계대출 및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NICE평가정보, 통계청

가계대출 및 GDP, GNI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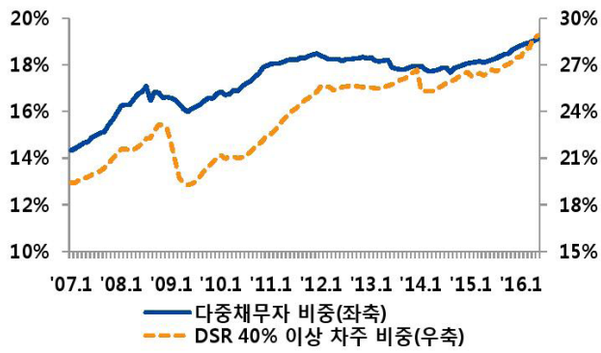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다중채무자, DSR 40% 이상 차주 등 부채 보유 차주 내 취약차주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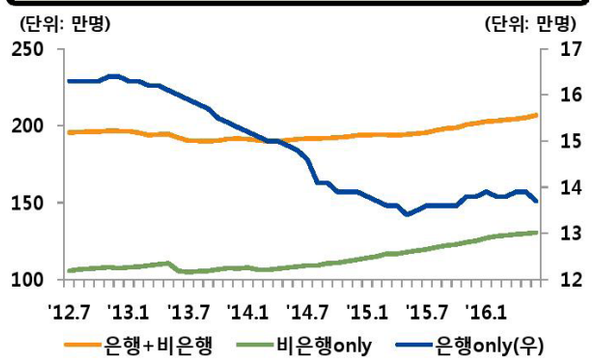
- 취약차주로 평가되는 다중채무자(서로 다른 기관에서 3건 이상 대출보유 차주) 및 DSR(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40% 이상 차주도 증가
-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비은행만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

다중채무자 및 DSR 40% 이상 차주 비중



주: 다중채무자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임
DSR(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계산시 NICE 추정소득을 활용함
자료: NICE평가정보

유형별 다중채무자 추이



주: 다중채무자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NICE평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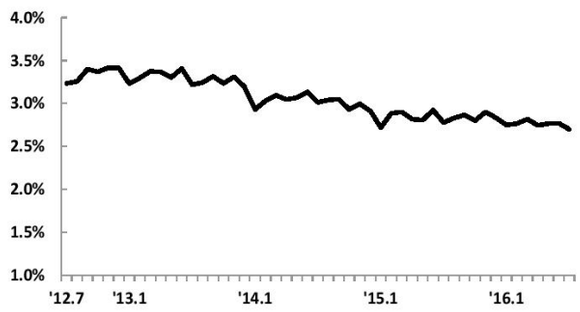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주컨퍼런스-1.indd 33 2016-09-19 오후 5:15:18

가계대출 유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총량적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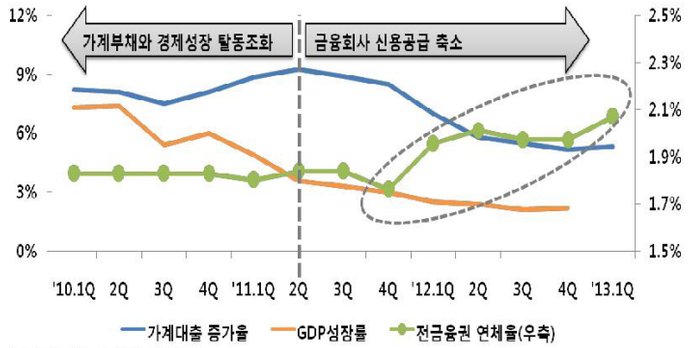
-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잠재부실률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대출 유동성이 확대된 현 시점에서 총량적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10년 1분기~'11년 2분기 가계대출 유동성이 확대된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년 6월)으로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연체율이 상승하였음

가계대출 잠재부실률 추이



주: 잠재부실률은 30일 이상 미해제 CB연체 보유자 비율임
자료: NICE평가정보

'10년~'13년 1분기 가계대출 및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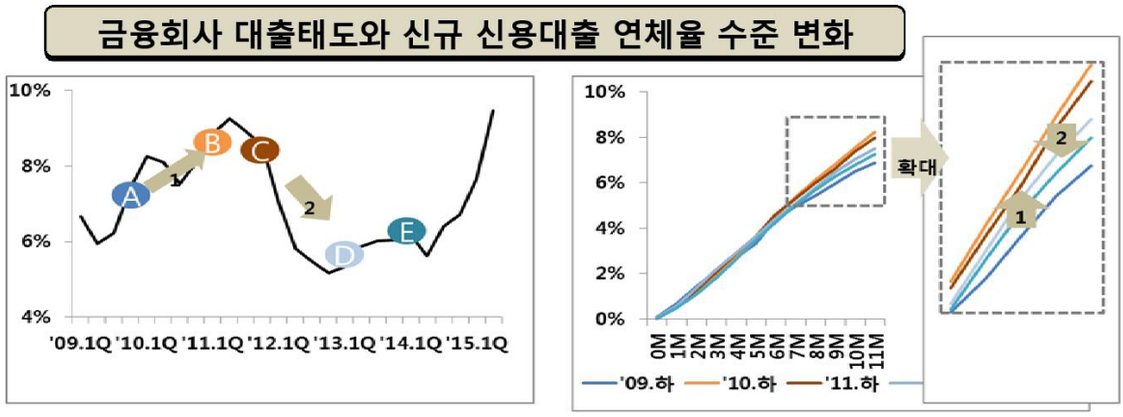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NICE평가정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금융회사의 대출태도가 강화될 경우, 신용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신용대출은 차주의 자금 수요 보다는 공급자의 금융회사 대출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신규 신용대출 차주의 빈티지 분석 결과, 금융회사의 대출태도가 강화로 전환될 경우 금융회사 대출태도가 완화된 기간 동안 대출을 실행한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융회사 대출태도와 신규 신용대출 연체율 수준 변화



자료: NICE평가정보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주컨퍼런스-1.indd 34 2016-09-19 오후 5:15:19

Discover More
Information

Create Further
Knowledge

Deliver Better
Solutions

Contents

01 가계대출시장 동향

02 가계대출 건전성 진단

03 유형별 분석

04 시사점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NICE평가정보(주)

부채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차주를 세분화하여 가계부채 건전성을 파악하고자 함

소득과 자산을 활용한 차주 세분화



주: 소득은 NICE추정소득 기준 연 3,200만원 이하(대출보유자 추정소득 하위 40%)인 차주를 저소득 차주, 3,200만원 초과 차주를 중소득 이상 차주로 구분
자산보유 유무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외부동산대출 보유 유무로 구분

- 가계부채가 어떤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한 가계부채 건전성 분석이 필요
-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이하 소득-자산으로 표기)을 기준으로 4그룹(A,B,C,D)으로 분류
  - 자산 보유 유무는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보유 유무로 구분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NICE평가정보(주)

제주컨퍼런스-1.indd 35 2016-09-19 오후 5:15:19

대출차주의 부실에 상환능력이 영향을 미침

- 그룹별 위험수준을 살펴본 결과 2016년말 현재 잠재부실률 수준은 그룹D가 0.7%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그룹C(1.2%), 그룹B(3.4%), 그룹A(4.3%)순임
- 상환능력 중 자산이 소득에 비해 대출차주 부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

소득-자산 기준 가계대출 잠재부실률

구 분	저소득	중소득 이상	전 체
부동산담보대출 미보유	4.3%(A)	3.4%(B)	3.8%
부동산담보대출 보유	1.2%(C)	0.7%(D)	0.9%
전 체	3.4%	2.2%	2.8%

2.9%p

1.2%p

주: 1)소득은 NICE추정소득 기준 연 3,200만원 이하(대출보유자 추정소득 하위 40%)인 차주를 저소득 차주, 3,200만원 초과 차주를 중소득 이상 차주로 구분, 자산보유 유무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외부동산대출 보유 유무로 구분
2)잠재부실률은 미해제 CB연체 30일 이상 보유차주의 비율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가계대출 잔액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중소득 이상의 자산 보유 차주(D그룹)에 집중

- '16년 6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60.2%를 위험도가 가장 낮은 D그룹 차주가 보유
  - 자산의 대용변수인 부동산담보대출을 보유한 중소득 이상의 차주(전체 차주 중 26.5%)가 가계부채 792조원 보유

소득-자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 분포

구 분	저소득	중소득 이상	전 체
부동산담보대출 미보유	525.2만명(A) (28.7%)	607.2만명(B) (33.2%)	1,132.4만명 (61.9%)
부동산담보대출 보유	211.3만명(C) (11.6%)	483.5만명(D) (26.5%)	694.8만명 (38.1%)
전 체	736.5만명 (40.3%)	1,090.7만명 (60.7%)	1,827.2만명 (100%)

소득-자산 기준 가계대출 잔액 분포

구 분	저소득	중소득 이상	전 체
부동산담보대출 미보유	86.4조원(A) (6.5%)	210.6조원(B) (17.3%)	297.1조원 (23.8%)
부동산담보대출 보유	227.5조원(C) (16.0%)	792.0조원(D) (60.2%)	1,019.5조원 (76.2%)
전 체	313.9조원 (32.5%)	1,002.6조원 (77.5%)	1,316.5조원 (100%)

주: 소득은 NICE추정소득 기준 연 3,200만원 이하(대출보유자 추정소득 하위 40%)인 차주를 저소득 차주, 3,200만원 초과 차주를 중소득 이상 차주로 구분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을 더함
2016년 6월말 기준, ( )는 전체 차주 내 해당 차주 비중
자료: NICE평가정보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주컨퍼런스-1.indd 36 2016-09-19 오후 5:15:20

저소득 차주(A,C그룹)의 가계대출 보유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자산 보유한 저소득 차주(C그룹)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
- 한편, A그룹(저소득, 자산 미보유)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11.3%)이 차주 수 증가율(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자산 미보유 차주의 상환능력 점검이 필요

소득-자산 그룹별 가계대출 차주 증가율

구 분	저소득	중소득 이상
부동산담보대출 미보유	0.0%(A)	1.2%(B)
부동산담보대출 보유	3.2%(C)	3.7%(D)

소득-자산 그룹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구 분	저소득	중소득 이상
부동산담보대출 미보유	11.3%(A) (9조원)	10.1%(B) (19조원)
부동산담보대출 보유	15.3%(C) (30조원)	10.6%(D) (76조원)

주: 소득은 NICE추정소득 기준 연 3,200만원 이하(대출보유자 추정소득 하위 40%)인 차주를 저소득 차주, 3,200만원 초과 차주를 중소득 이상 차주로 구분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을 더함
2016년 6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NICE평가정보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Discover More
Information

Create Further
Knowled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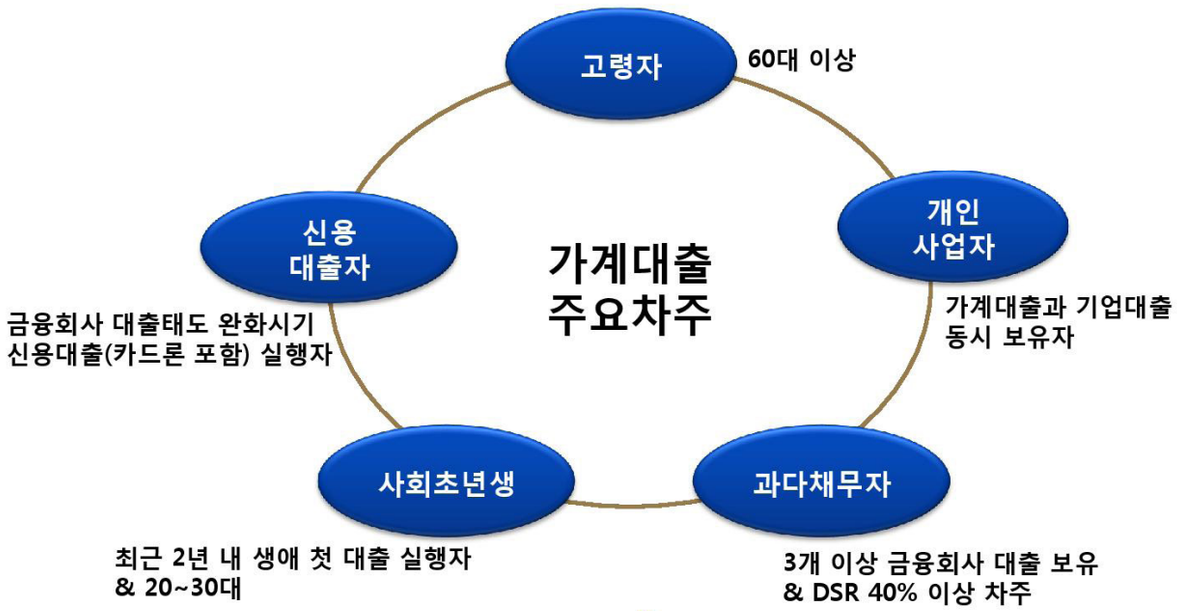
Deliver Better
Solutions

01 가계대출시장 동향
02 가계대출 건전성 진단
03 유형별 분석
04 시사점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주컨퍼런스-1.indd 37 2016-09-19 오후 5:15:20

가계대출 차주의 특성별 상세 분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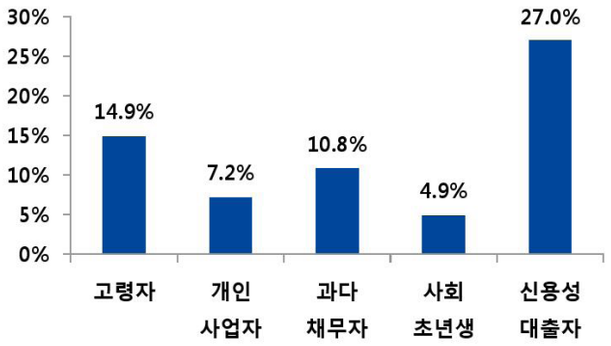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자가 가장 많고, 위험수준은 개인사업자(가계대출, 기업대출 동시 보유자)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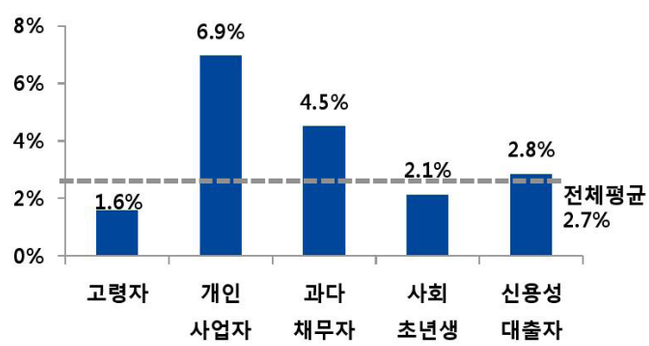
- 2016년 6월말 현재 가계대출 보유자 중 신용 대출자 비중이 2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령자(14.9%), 과다채무자(10.8%), 개인사업자(7.2%), 사회초년생(4.9%) 순
- 유형별 잠재부실률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다채무자(4.5%), 신용대출자(2.8%)가 전체 평균을 상회

대출보유자 대비 유형별 비중



주: 2016년 6월말 기준
자료: NICE평가정보

유형별 잠재부실률



주: 2016년 6월말 기준, 잠재부실률은 미해제 CB연체 30일 이상 보유 차주 비율
자료: NICE평가정보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주컨퍼런스-1.indd 38 2016-09-19 오후 5:15:21

전체 대출자와 각 유형간 대출자의 자산-소득 그룹별 구성비(차주 기준)는 상이

자산-소득 그룹별/유형별 차주 수 비중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전체	29.0%	33.2%	11.6%	26.3%
고령층	27.7%	20.5%	29.1%	22.7%
개인사업자	18.2%	35.6%	12.3%	34.0%
과다채무자	22.4%	22.9%	16.2%	38.6%
사회초년생	62.2%	21.0%	9.4%	7.4%
신용대출자	30.5%	39.5%	8.6%	21.4%

- 고령층은 그룹C의 비중이 전체 대비 높은 반면, 개인사업자와 과다채무자는 그룹D, 사회초년생 그룹A, 신용대출자 그룹B의 비중이 각각 높았음
  - 고령층의 그룹C 비중은 29.1%로 전체 대비 17.5%p 높은 반면, 사회초년생은 그룹A 비중이 62.2%로 전체 대비 33.2%p 높았음
  - 개인사업자와 과다채무자는 그룹D의 비중이 전체 대비7.7%p, 12.3%p 컸음

주: 소득은 NICE추정소득 기준 연 3,200만원 이하(대출보유자 추정소득 하위 40%)인 차주를 저소득 차주, 3,200만원 초과 차주를 중소득 이상 차주로 구분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을 더함
2016년 6월말 기준
자료: NICE평가정보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전체 대출자와 각 유형간 대출자의 자산-소득 그룹별 구성비(대출금액 기준)는 상이

자산-소득 그룹별/유형별 대출금액 비중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전체	6.5%	16.0%	17.3%	60.2%
고령층	5.7%	7.0%	37.3%	50.0%
개인사업자	3.5%	11.3%	16.4%	68.8%
과다채무자	5.8%	12.1%	17.0%	65.0%
사회초년생	23.1%	20.2%	27.3%	29.3%
신용대출자	8.9%	21.0%	14.8%	55.3%

-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전체와 각 유형간 자산-소득 그룹별 구성비 차이는 유사
  - 고령층은 그룹C, 개인사업자 및 과다채무자는 그룹D, 사회초년생은 그룹A, 신용대출자는 그룹B의 비중이 각각 전체 대비 높았음
- 다만, 사회초년생을 제외하고 여타 유형의 대출금액이 위험수준이 낮은 자산 차주(그룹C, D)에 집중

주: 소득은 NICE추정소득 기준 연 3,200만원 이하(대출보유자 추정소득 하위 40%)인 차주를 저소득 차주, 3,200만원 초과 차주를 중소득 이상 차주로 구분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을 더함
2016년 6월말 기준
자료: NICE평가정보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주컨퍼런스-1.indd 39 2016-09-19 오후 5:15:21

개인사업자와 과다채무자의 잠재부실률 수준이 전 유형에서 평균 대비 높은 반면, 고령층과 사회초년생은 낮게 나타남

자산-소득 그룹별/유형별 잠재부실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전체
전체	4.3%	3.3%	1.2%	0.7%	2.7%
고령층	2.4%	2.3%	1.0%	0.7%	1.6%
개인사업자	14.1%	9.8%	2.7%	1.7%	6.9%
과다채무자	8.6%	6.6%	2.8%	1.6%	4.5%
사회초년생	2.7%	1.8%	0.3%	0.1%	2.1%
신용대출자	4.2%	3.1%	1.4%	0.9%	2.8%

- 자산 미보유(A, B) 개인사업자의 잠재부실률은 전체 대비 약 3배 높음
  - 자산 미보유(A, B) 과다채무자의 잠재부실률도 전체 대비 2배 높음
- 반면,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체적인 잠재부실률이 전체 대비 크게 낮았으며,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그룹A의 잠재부실률도 전체 평균에 불과
- 고령층은 잠재부실률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자산 미보유 그룹(A, B)의 위험수준이 전체 대비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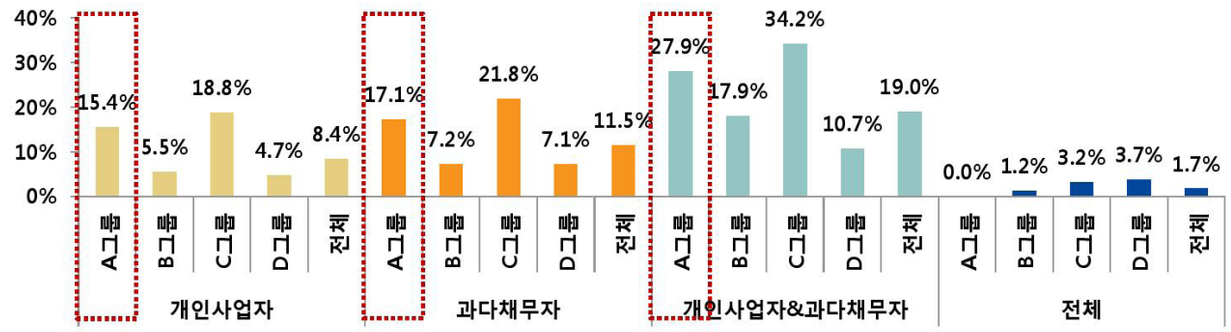
주: 소득은 NICE추정소득 기준 연 3,200만원 이하(대출보유자 추정소득 하위 40%)인 차주를 저소득 차주, 3,200만원 초과 차주를 중소득 이상 차주로 구분
잠재부실률은 30일 이상 미해제 CB연체 보유 차주 비율임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을 더함
2016년 6월말 기준
자료: NICE평가정보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위험수준이 높은 유형(개인사업자, 과다채무자) 중 그룹 A의 증가속도 빠르게 진행

- 위험수준이 높은 개인사업자(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동시보유자)와 과다채무자(다중채무자이면서, DSR 40% 이상 차주)의 증가속도가 평균을 크게 상회
- 특히,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A에서 개인사업자 및 과다채무자, 개인사업자이면서 과다채무자가 빠르게 증가

개인사업자 및 과다채무자 전년대비 증감률



주: 소득은 NICE추정소득 기준 연 3,200만원 이하(대출보유자 추정소득 하위 40%)인 차주를 저소득 차주, 3,200만원 초과 차주를 중소득 이상 차주로 구분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을 더함
자료: NICE평가정보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주컨퍼런스-1.indd 40 2016-09-19 오후 5:15:22

Discover More
Information

Create Further
Knowledge

Deliver Better
Solutions

Contents

01 가계대출시장 동향

02 가계대출 건전성 진단

03 유형별 분석

04 시사점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NICE평가정보(주)

시사점

가계부채 보유 차주의 건전성 모니터링 필요

- 가계대출 증가로 유동성이 확대된 현 시점에서 총량적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가계소득 회복세는 더딘 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계 상환여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제기
  - 가계대출의 잠재부실률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중채무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의 리스크 상승 가능성이 혼재
- 가계부채가 어떤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어떤 차주의 건전성이 취약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함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NICE평가정보(주)

제주컨퍼런스-1.indd 41 2016-09-19 오후 5:15:22

차주의 소득과 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대응 필요

- 가계대출시장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차주가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을 상실하기 때문
  - 이에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의 건전성 진단 결과 국내 가계대출은 빠른 증가속도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위험수준이 낮은 차주가 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위험이 발현될 개연성은 높지 않음
- 다만,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소득 수준도 낮은 측 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한 그룹A에서 위험수준이 높은 개인사업자와 다중채무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주의 필요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가계대출 주요 차주에 대한 고도화된 모니터링 필요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주컨퍼런스-1.indd 42 2016-09-19 오후 5:15:23


Discover More
Information
Create Further
Knowledge
Deliver Better
Solutions
감사합니다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NICE평가정보(주)

제주컨퍼런스-1.indd 44 2016-09-19 오후 5:15:23

제주컨퍼런스-1.indd 45 2016-09-19 오후 5:15:23

제주컨퍼런스-1.indd 46 2016-09-19 오후 5:15:23